

불국사와 석굴암

06



월

일

해 보기

자신이 말한 나라와 관련 없는 문화유산을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친구를 쓰세요.

()

가야!



선빈

신라!



유건

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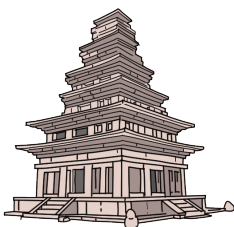


성구

고구려!



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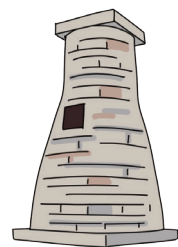
익산 미륵사지 석탑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불국사 다보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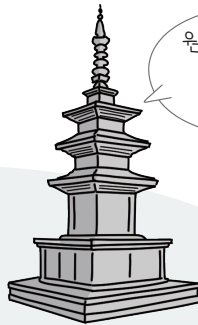


경주 첨성대

불국사에 관해 알아보까요?



불국사 다보탑



불국사 삼층 석탑

원래 이름은 '석가여래상주설법탑'이에요. 줄여서 '석가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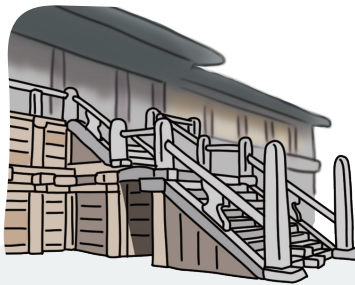
절의 탑은 원래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해 존경을 표하려고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석가모니의 사리가 없어도 절에 탑을 세우게 됐어요.

^{*}사리 : 석가모니를 화장(죽은 사람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내는 것)한 뒤에 남은 유골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현재 남아 있는 목판 인쇄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불국사 삼층 석탑을 보수하다가 발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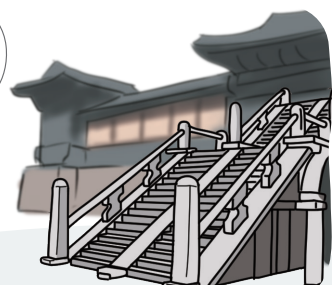


불국사 연화교와 칠보교

계단 아래쪽이 연화교, 위쪽이 칠보교!



계단 아래쪽이 백운교, 위쪽이 청운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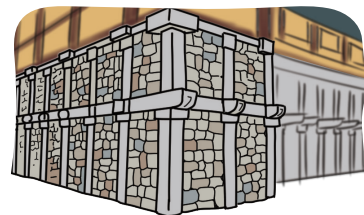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

신라 사람들은 '부처의 나라'인 불국토를 이루려는 마음으로 불국사를 지었어요. 청운교와 백운교에 다리를 의미하는 '교'를 붙인 까닭도 불국토와 현실 세계를 이어 주는 다리라는 의미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불국사

불국사는 넓은 터에 먼저 돌을 쌓아 평평하게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로 지어 올린 절입니다. 그래서 불국사에 가면 건물 아래쪽이 돌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받침을 만들 때는 자연 그대로의 울퉁불퉁한 돌을 먼저 쌓았습니다. 틈이 난 부분은 돌을 깎아서 끼워 넣었습니다. 불국사는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하다고 합니다.



석굴암의 우수성을 살펴볼까요?

석굴암의 아치형 천장

석굴암은 화강암을 쌓아 올려 동굴처럼 만든 절이에요.
천장은 여러 방향에서 돌을 ^{*}아치형으로 쌓아 올린 후
정상에 크고 둥근 돌을 한 장 없어 ^{*}돔형으로 완성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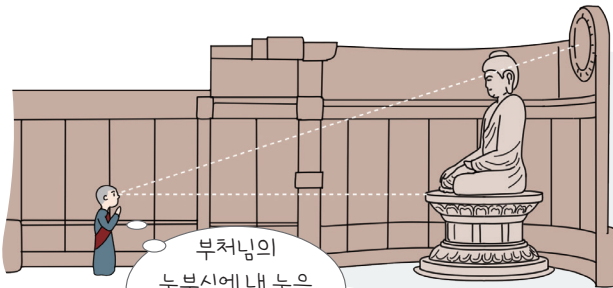
^{*}아치형 : 반원형 구조물로 활이나 무지개 같이 한가운데로 높고 길게 굽은 모양

^{*}돔형 : 절반으로 나눈 구를 얹어 놓은 모양



신라의 눈부신 과학 기술,
여러분도 보시죠?

석굴암의 본존불



부처님의
눈부심에 내 눈은
절로 감기는구나.

석굴암 본존불 뒤 벽면에는 ^{*}두광을 나타내는
연꽃무늬 조각이 있어요. 기도하는 위치에서
불상을 보면 불상의 머리가 두광의 중앙에 와요.

^{*}두광 : 부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신비한 빛

석굴암의 석굴 내부

석굴암의 바닥에는 차가운 물이 흘러서
내부 온도와 습기가 저절로 조절됐어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석굴암을 해체하고
복원하면서 이 기능을 잃었어요.

어쩔 거야? 부처님이
힘들어하시잖아!

원래는 이렇게
덥지 않고 습기도
적었는데....



불국사는 고대 한국 절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아름답습니다. 석굴암은 건축 기술의 우수성과
내부의 예술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모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불국사

- 부처의 나라인 불국토를 이루려는 마음을 담아 불국사를 건설하였다.
-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는 불국토와 현실 세계를 잇는 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불국사에서는 불국사 삼층 석탑과 불국사 다보탑을 볼 수 있다.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현재 남아 있는 목판 인쇄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 석굴암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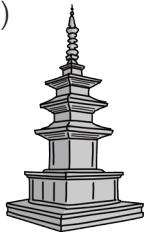


- 천장을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아치형으로 만들고 돔형으로 완성하였다.
- 기도하는 위치에서 불상을 보았을 때 불상의 머리가 두광의 중앙에 온다.
- 원래 내부 온도와 습기가 저절로 조절되도록 만들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 그 기능을 잃었다.

1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을 쓰세요. ()

2 불국사에 있는 다음 탑들의 이름을 쓰세요.

(1)



()

(2)



()

3 석굴암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보기

- ㉠ 목재를 쌓아 올려 동굴처럼 만든 신라 시대의 절이다.
- ㉡ 석굴암의 본존불 뒤 벽면에는 두광을 표현한 연꽃무늬 조각이 있다.
- ㉢ 천장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정상에 크고 둥근 돌을 얹어 돔형으로 완성했다.

4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석굴암은 본래 높은 기온과 습한 공기 때문에 동굴 내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바닥에 항상 ㉠ _____ 이 흐르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석굴암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기능을 잃었다.



불국사와 석굴암

06



월

일

해 보기

★ 바른 답 확인하기 7쪽

자신이 말한 나라와 관련 없는 문화유산을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친구를 쓰세요.

(선빈)

가야!



선빈

신라!



유건

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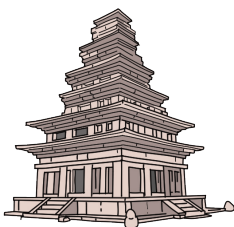


성구

고구려!



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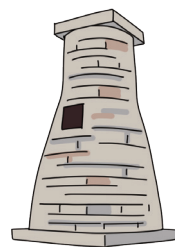
익산 미륵사지 석탑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불국사 다보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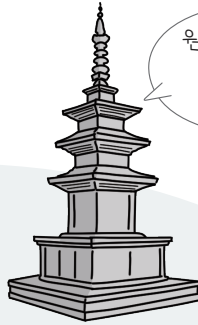


경주 첨성대

불국사에 관해 알아보까요?



불국사 다보탑



불국사 삼층 석탑

원래 이름은 '석가여래상주설법탑'이에요. 줄여서 '석가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절의 탑은 원래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해 존경을 표하려고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석가모니의 사리가 없어도 절에 탑을 세우게 됐어요.

^{*}사리 : 석가모니를 화장(죽은 사람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내는 것)한 뒤에 남은 유골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현재 남아 있는 목판 인쇄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불국사 삼층 석탑을 보수하다가 발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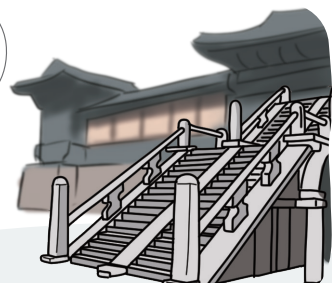


불국사 연화교와 칠보교

계단 아래쪽이 연화교, 위쪽이 칠보교!



계단 아래쪽이 백운교, 위쪽이 청운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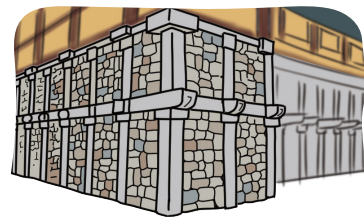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

신라 사람들은 '부처의 나라'인 불국토를 이루려는 마음으로 불국사를 지었어요. 청운교와 백운교에 다리를 의미하는 '교'를 붙인 까닭도 불국토와 현실 세계를 이어 주는 다리라는 의미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불국사

불국사는 넓은 터에 먼저 돌을 쌓아 평평하게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로 지어 올린 절입니다. 그래서 불국사에 가면 건물 아래쪽이 돌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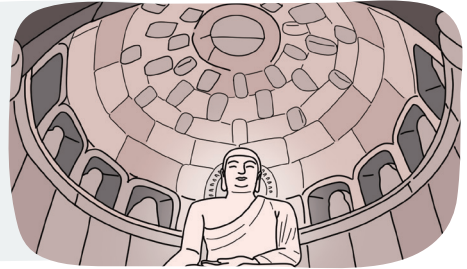
돌받침을 만들 때는 자연 그대로의 울퉁불퉁한 돌을 먼저 쌓았습니다. 틈이 난 부분은 돌을 깎아서 끼워 넣었습니다. 불국사는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하다고 합니다.



석굴암의 우수성을 살펴볼까요?

석굴암의 아치형 천장

석굴암은 화강암을 쌓아 올려 동굴처럼 만든 절이에요.
천장은 여러 방향에서 돌을 ^{*}아치형으로 쌓아 올린 후
정상에 크고 둥근 돌을 한 장 없어 ^{*}돔형으로 완성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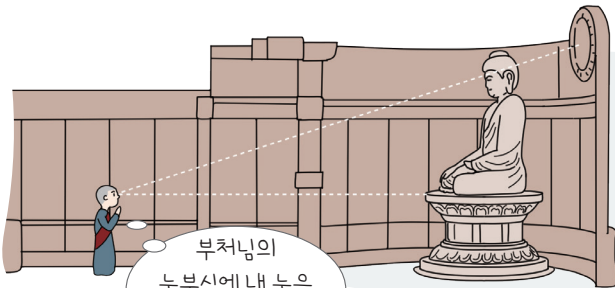
^{*}아치형 : 반원형 구조물로 활이나 무지개 같이 한가운데로 높고 길게 굽은 모양

^{*}돔형 : 절반으로 나눈 구를 얹어 놓은 모양



신라의 눈부신 과학 기술,
여러분도 보시죠?

석굴암의 본존불



부처님의
눈부심에 내 눈은
절로 감기는구나.

석굴암 본존불 뒤 벽면에는 ^{*}두광을 나타내는
연꽃무늬 조각이 있어요. 기도하는 위치에서
불상을 보면 불상의 머리가 두광의 중앙에 와요.

^{*}두광 : 부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신비한 빛

석굴암의 석굴 내부

석굴암의 바닥에는 차가운 물이 흘러서
내부 온도와 습기가 저절로 조절됐어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석굴암을 해체하고
복원하면서 이 기능을 잃었어요.

어쩔 거야? 부처님이
힘들어하시잖아!

원래는 이렇게
덥지 않고 습기도
적었는데....



불국사는 고대 한국 절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아름답습니다. 석굴암은 건축 기술의 우수성과
내부의 예술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모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불국사

- 부처의 나라인 불국토를 이루려는 마음을 담아 불국사를 건설하였다.
-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는 불국토와 현실 세계를 잇는 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불국사에서는 불국사 삼층 석탑과 불국사 다보탑을 볼 수 있다.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현재 남아 있는 목판 인쇄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 석굴암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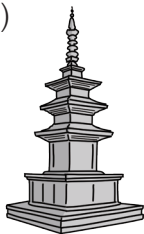


- 천장을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아치형으로 만들고 돔형으로 완성하였다.
- 기도하는 위치에서 불상을 보았을 때 불상의 머리가 두광의 중앙에 온다.
- 원래 내부 온도와 습기가 저절로 조절되도록 만들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 그 기능을 잃었다.

1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을 쓰세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2 불국사에 있는 다음 탑들의 이름을 쓰세요.

(1)



(불국사 삼층 석탑)
(석가여래상주설법탑 또는 석가탑)

(2)



(불국사 다보탑)

3 석굴암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보기

- ㉠ 목재를 쌓아 올려 동굴처럼 만든 신라 시대의 절이다.
- ㉡ 석굴암의 본존불 뒤 벽면에는 두광을 표현한 연꽃무늬 조각이 있다.
- ㉢ 천장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정상에 크고 둥근 돌을 얹어 돔형으로 완성했다.

4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석굴암은 본래 높은 기온과 습한 공기 때문에 동굴 내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바닥에 항상 ㉠ 차가운 물 이 흐르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석굴암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기능을 잃었다.

